

尤庵 宋時烈的 濟州流配詩 小考

梁 淳 秘*

목 차

- I. 서론
- II. 시대와 생애
- III. 송시열의 문학관
- IV. 우암의 제주유배시 분석
- V. 결론

I. 서 론

올해가 우암의 303주기를 맞는 해이다. 오늘의 현실은 범람하는 외래 문화의 밀물 속에서 우리의 것은 몰각하고 중심을 상실하여 그 사상적 표류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암의 높고 깊은 학문과 그 蔚然한 行道の 準的인 대의정신은 이에 있어 뚜렷한 등불이 되고 남을 줄로 안다.

이 글은 숙종 15년(1689) 2월에 기사환국의 화를 입어 제주섬에 유배되고

* 濟州大學校 國語教育科 教授

동년 6월 7일에 조정의 재국문을 받기 위해 소환되어 가던 중 전라도 정읍에서 사약을¹⁾ 받았던 尤庵 宋時烈(1607-1689)의 제주 유배시를 고찰하고 그것이 갖는 문학적 특성을 살펴 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II. 시대와 생애

우암 송시열(1607~1689)은 조선 중기에 파란 많은 생애를 살면서 당대를 이끈 노론의 영수였다. 그는 정치가이며 문신으로 군왕의 각별한 권우를 입은 사림의 거목이었다.

우암은 평생 주자를 삶의 목표로 그 달성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의 수양 방법은 存養 공부를 가장 중요시 하였다. 存心養性은 심성 수양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덕성을 지키는 도덕성의 공부이다.

우암의 아명은 聖賢, 자는 莢甫, 호는 尤庵, 華陽洞主이다. 우암은 24세 때 連山에 있는 沙溪 金長生(1548~1631)에게 〈心經〉과 〈近思錄〉 등 주자서를 배웠으며 사제의 사후에는 그의 아들인 愼德齊 金集(1574~1656)에게 계속 수학하였는데 이들의 학문은 덕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욕심을 멀리하고 항상 도심의 근원인 성의를 간직하는 것이다. 이른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그는 존양과 성찰에 두고 있는데 존양은 존심과 양성으로 천부의 덕성을 지키고 인간 본연의 상태인 성을 간직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범인은 홀로 있을 때 人慾에 사로잡혀 덕성을 더럽혀 성인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데 우암은 스승인 김집에게서 愼獨하는 공부로 배워 자신의 수양 방법으로 삼았다.

우암은 주자의 평생의 일은 인간의 본성을 지키는 일이었음을 자임하고 그 결과 유학의 연원을 실어 놓은 〈四書〉를 주해하고 〈心經〉을 저술하여 유학의 도통을 계승하고 성리의 도를 펴고자 하였다. 우암은 栗谷 李珥(1536~1584)와

1) 安鍾和, 『國朝人物志』(Ⅲ), p.145, “肅宗己巳謫濟州拿到井邑賜死”

靜庵 趙光祖(1483~1519)만이 유일하게 성리학의 도통을 이은 사람으로 여겼고 자신도 그 일을 자임하고 평생의 업으로 삼고자 하였다.

우암은 주자가 연역해 놓은 <四書集註>와 <朱子大全>, <朱子語類> 등을 통해 주자의 사상을 섭렵하여 그 도학정치를 몸소 실천하여 요순의 태평치세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율곡의 도학의 실천궁행을 계승하는 것을 자신의 길로 여기고 있었다.

우암은 숙종 15년(1689) 기사 2월에 제주에 유배되었다. 숙종 14년(1688) 10월에 장희빈이 왕자를 출산했다. 숙종은 불과 석 달이 못 지나서 숙종 15년 기사 정월에 왕자의 명호를 정하여 원자로 삼고 장씨를 소의에서 회빈으로 책봉하려고 하였다. 이 때 우암은 중궁 인현왕후 민비가 아직 춘추가 젊으니 세자 책봉은 불가하다고 상소를 올렸다. 이 때 숙종은 29세이고 민비는 23세이므로 그렇게 진언한 것이다. 이에 숙종은 크게 노하여 무례한 말로써 세자 책봉에 간섭하는 것이라 하여 이에 동조한 서인들을 조정에서 실각시키고 남인으로 하여 집권케 하였다. 이것이 기사환국인 것이다. 집권한 남인들은 우암의 단죄를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우암은 83세의 고령임에도 제주섬으로 유리안치의 극형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왕 15년 기사 5월에 <己巳五月遺疏>를 해남에서 초하였다. 그 내용은 孝廟의 大志와 대사를 극히 높이고 請世室이 옳음을 다시 강조하고 이를 반대하여 이것이 죄된다 하는 이들을 辨斥하는 상소였다.

우암은 그 해 6월까지 백여 일 동안 제주목 산지골 尹繼得의 집을 적소로 정하여 두 아우, 아들, 손자, 노복들과 함께 기거하면서 유배 생활을 하였는데 그 동안에도 그의 손자 曠錫과 함께 <송자대전>, <어류>, <역학> 등을 강론하고 제주의 굴림서원의 축문을 짓기도 하였다. 이 때 제주의 유림은 뜻밖의 거유를 맞아 성리학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늘상 우암을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남인들이 또 다시 그를 국문토록 청하여, 우암은 서울로 압송되던 중 그 해 6월 7일에 전라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았다. 우암은 사약을 받고 마시기 직전 자기의 高足인 권상하와 김만준의 손을 잡고 부탁하여 말하기를 "학문은 주자학을 주로 함이 마땅하고 사업은 효종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뜻을 주로 삼

아라 주자가 舍冤忍痛迫不得已라는 팔자를 주장하였으니 뜻을 같이 하는 선비에게 전수하여 잊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천지간에 만물이 생긴 까닭은 성인이 만사를 옹하도록 한 까닭이니 <直>자 뿐이다. 공자와 맹자 이래로 상응한 것은 오직 <直> 하나 뿐이다. 그리고 朱夫子 역시 문인들에게 부탁 한 것도 이것 외에는 없었다.”²⁾ 내가 항상 생각하기를 “아침에 도를 듣게 되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고 믿어 오던 바인데 이제 80이 넘도록 살았으나 마침내 도를 듣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 될 뿐이다.”³⁾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 파란만장했던 삶을 83세로 마친다.

한 때 우암은 효종의 사부를 지내고 효종 2년(1651) <長陵誌文>에 청나라 국호를 사용치 않았다는 이유로 청의 압력으로 낙향하기도 한다. 동왕 9년(1658)에 우암은 효종이 병자호란 때의 국치비분의 한을 씻고자 복벌계획을 추진하자 이를 뒷받침하였다. 효종이 돌아가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암은 숙종 1년(1675)에 복제론 시비로 경원에 유배당하기도 한다. 우암은 노론의 거목이요 석유로 출사, 유배, 복직, 유배, 사사 당하는 파란 많은 생애를 살았다.⁴⁾ 요컨대 우암은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측면에 말하는 그러한 의미의 당리당락을 위해서 싸운 것은 아니다. 그는 이른바 聖賢之道의 수호를 위하여 싸운 것이다. 물론 그는 그 수호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 임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끝까지 군왕이 내린 사약으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싸운 것이다.

우암은 사후 숙종 20년(1694) 2월에 관직이 복구되고 文正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제주에서는 동왕 21년(1695) 2월에 제주 유생 金聖雨 등이 상소하여 굴림서원에 배향하니 이 때부터 굴림서원에는 冲庵 金淨(1486~1520), 圭庵 宋麟壽(1487~1547), 桐溪 鄭蘊(1569~1641), 淸陰 金尚憲(1570~1652), 尤庵 宋時烈(1607~1689) 등 오현을 제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암은 文廟, 孝宗廟를 비롯

2) 『肅宗實錄』 숙종 15년 6월 무진 3일조

3) 『초산일기』

4) 梁淳秘, 「朝鮮朝流配文學研究-제주도를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논문, 1982), p.69.

한 전국 10여개 서원에 제향되었다. 우암이 제주에 유배된 이후부터 제주도에
는 유학의 교학진흥을 목표로 도내 각지에 서당, 서원이 세워졌다. 제주목내
에 굴림서원, 향현당, 삼천서당, 장수당 등을 비롯해 명월성내에 월계정사,
우학당, 애월의 상가에 서학당, 정의현에 원계정사 등이 세워진 것은 우암이
유배지 제주섬에 끼친 유풍진작의 영향⁵⁾이라 하겠다. 우암은 제주 유배생활
동안에 창출한 <論孟問義通攷> (83세), <退溪全書割疑> (83세)를 비롯하여 <朱子
語類小分>, <心經釋義>, <朱子大全割疑>, <二程全書分類>, <沙溪先生行狀>
등이 있다.

지금도 오현단에 유희비와 함께 그의 친필인 <曾朱壁立>⁶⁾이란 마애명이 있
는데 이것이 오늘날 그가 제주도에 남긴 유일한 흔적이다.

Ⅲ. 송시열의 문학관

우암은 자기가 생존하고 있는 시대를 철저하게 위기의 시대로 인식하고 그
런 대책에 부심했던 사람이다. 그의 문학관 역시 이러한 시대에 대한 전반적
인 위기의식을 근거로 해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암의 문학관
은 주자학적인 재도론을 계승하면서 극단적인 天理之正의 문학을 강조했던 것
이다. 그렇게 해야만 氣의 혼란으로부터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에게 있어 문학은 오로지 하나의 이치, 곧 하나의 理를 제시
하는 것이어야만 했다.

사림파에 의해 16세기에 심화된 성리학의 이해는 17세기에 들어서서 엄격한
정주학 내지는 주자학의 사상 체계를 견지해 나갔다. 대외적으로는 명나라의
몰락과 청나라의 등장, 안으로는 사상적인 분파와 치열한 당쟁으로 인하여 조
선중화의식 이른바 '조선=華, 청=夷'이라는 신념인 華夷論的 秩序觀 및 예
론이 시대사상의 핵심적인 명분론 내지는 정통론적인 의식으로 자리하고 있었

5) 앞의 책, p.89.

6) 「濟州磨崖銘拓本特別展」,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89), p.26.

다.

許筠(1569~1618)은 문학은 험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情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인간의 타고난 정을 天이라 규정하였으며 張維(1587~1638)는 새로운 문학은 문학의 진실성인 天氣를 추구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이후의 천기론적 시의식의 실마리를 보여 준다. 이들은 문학이 도의의 근본인 性情之正을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제도론에 반론을 제시했으며 그러한 반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문학사상을 전개해 나간 것이다.

존재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도의의 원리인 理를 모색하고자 한 이퇴계의 입장이나 주기론적 입장에 있으면서도 문학은 도의의 근본을 구현해야 한다고 한 이율곡의 주장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있어서도 道文一致論⁷⁾인 제도론적 문학관은 여전히 시대를 지배하는 문학관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문학사상에 대한 제도론의 반격 또한 치열한 것이었다. 사상적인 반론과 병행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문학관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제도론적 문학관은 이퇴계나 이율곡의 경우보다 더욱 경화된 규범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암 송시열의 경우이다.

조선 후기에 정권을 독점하게 되는 노론 벌열층의 영수인 우암은 주자학적 인 명분론과 화이론적 질서관을 절대적 명제로 내세워 북벌론과 예론을 주도해 나갔다. 곧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명 왕조를 무너뜨린 청나라에 대해 북벌론을, 이에 상응해서 땅에 떨어졌다고 여겨지는 인륜도덕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예론을 내세웠던 것이다. 물론 우암이 효종의 북벌론을 적극 보필함에는 魚水之契로 맺은 의리와 청의 내분을 틈한 북벌론의 명분이 뚜렷했었다.

한편 우암의 사상이 이원론적 주기론을 계승하고 있었던 만큼 理發을 인정치 않고 氣發을 내세웠지만 우암은 존재의 원리로서의 理를 포기하는 대신에 도덕적 당위로서의 理를 절대화하고 그런 근거를 주자에게서 찾았던 것이다.

7) 『通書』〈文辭〉 제28 “文所以載道也”

위기의식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 우암은 한 때의 기가 어지럽더라도 그것은 理에 의해 반드시 바로 잡아질 수 있다고 믿어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주자라는 절대적 권위에 힘입어 합리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미루어 살펴 보면 우암의 문학관은 제도론적 문학관을 이어받고 있으나 제도론의 논리를 훨씬 더 극단적인 것으로까지 물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암의 주장은 주자를 거론함으로써 합리화하고 있다.

우암은 문학의 문제는 성인만이 논할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논란과 쟁점이 많을 수 있는 소지들 아예 배재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인의 권위를 등에 업고서 그 견해를 절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주자의 말을 그대로 끌어온다고 한 우암의 주장은 옛날과 지금, 전아한 것과 속된 것을 대립시키면서 후자의 것들은 당연히 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곧 시는 옛날의 체제를 따르고 전아한 규범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筋血肢膏’ 곧 냄새나는 피와 기름기는 그러한 시적 이상에 어긋나는 방해물이다. 그것은 인간의 심성을 파괴하는 인육이라고 할 수 있다. 세속에 물든 인육을 배제하고서 존심양성을 해야 시는 비로소 도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 우암의 생각이다. 더 나아가 우암은 시가 드러내야 할 도는 당연히 육경과 같은 경전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인의 도덕과 같은 인륜의 도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우암은 성정이 天理之正에 근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곧 우암에게 이르러 제도론적 문학관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암은 문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천리지정을 설정하여 자기 시대의 위기의식과 현실적 추세를 막는 한편으로 그러한 천리지정에서 벗어나는 문학은 모두 거짓이라고 배격하는 것이다. 곧 천리지정에 근본하지 않은 성정에서 나온 문학은 ‘음란한 소리’ ‘病風傷性的 난잡함’ ‘망신망국의 거친 소리’이거나 ‘번잡한 소리’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암에 따르면 사물이란 “의리가 정순하고 논의가 올바라서 斯文에 도움이 되고 世道를 補正할 수

있는 것”⁸⁾이어야만 한다. 아무리 교묘하고 아름다운 사라 하더라도 사문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세도를 보정할 수 없는 글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문장을 짓기에 앞서서 작자에게 도덕이 먼저 갖추어 있어야만 한다. 올바른 도만 갖추어져 있으면 문장은 곧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었다. 조선조의 학문하는 태도는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독점적인 권위를 가진 주자 등 성현의 견해를 반복해 순용하는 依樣的 태도가 그 하나이고 권위를 청산하고 나름대로의 모색에 따른 自得的 태도가 다른 하나이다. 우암은 바로 전자의 태도로 문학을 해야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IV. 우암의 제주 유배시 분석

우암의 시는 <송자대전> 제1권으로부터 제4권에 이르는 분량과 그밖에 거기에 누락된 얼마간의 것들이 있다. 분량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이 시들은 우암의 성정의 표출이어서 우암시의 그 문학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우암의 사상과 학문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 중에서 우암 송시렬의 제주 유배시는 그의 문집 <송자대전 2권>에 15수가 수록되어 있다. 우암의 제주 유배시는 자기의 정치적 이상이었던 도학정치외 좌절에 따른 유배생활 속에서의 군왕에 대한 절의충념과 신상자탄, 가족과 교우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고 있다. 그중에 특히 연군에 대한 절의충념은 효종과 관련하여 읊고 있다. 우암이 효종을 섬긴 기간은 짧았으나 그에 대한 절의충념은 평생을 두고 이어지고 있다.

효종은 청의 침략을 당하여 그들로부터 당한 통한의 국치에 대하여 복벌을 통하여 복수할 것을 꾀하였는데 이 때 우암은 <己丑封事>를 올려 복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효종과 내심으로 부합하여 전례없는 권우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효종의 승하로 그 원대한 복벌정책과 모든 계획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으

8) 『宋子大全』 138, 「澤堂集序」 “然求其義理之精 論義之正 可以羽翼斯文 裨補世道者”

로 돌아가고 연이어 <己亥禮論>과 仁宣王后의 상으로 말미암은 2차 예송 시비로 유배당하게 되었다. 끝내는 숙종 때 발생한 기사환국으로 우암은 제주섬으로 유배당하게 되었다. 원숙한 인생 83세의 고령임에도 짧은 제주섬에서의 절망적인 유배생활을 창작의 계기로 삼아 유배시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암의 제주 유배시를 첫째 절의 충념, 둘째 신상자탄, 셋째 회향회억, 넷째 자연애, 다섯째 낙천적 영회 등의 주제적 내용으로 분석 고찰하기로 한다.

1) 節義忠念

耽羅道中

上爲閭閻下粟翁	위로는 주자를 아래로는 울곡을 위해
要除弊事罄愚衷	폐단을 제거코자 마음을 다했는데
如今却向耽羅去	이제 탐라를 향해 떠나면서
回望寧陵泣孝宗	영릉을 바라보고 효종 생각에 울었다네.

위의 7언절구 <耽羅道中>은 시의 표제가 뜻하듯 유배지 탐라로 가는 도중 우암의 심정을 읊었다. 위의 시는 기사년(숙종 15년, 1689) 2월 17일 전라도 정읍의 천원역에서 畏齊 玄石 朴世采에게 보낸 작품이다. 효종이 일찍이 전교하기를 “하늘의 이치를 밝히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잡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이제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사람은 우암 그대가 아니면 누구이겠는가?”고 하였다. 우암은 52세이던 효종 9년(1658) 12월에 효종으로부터 장차 왕과 더불어 청나라 정벌길 추운 요계 땅 벌판에서 지휘할 때 입으라고 담비털옷을 하사받는다. 끝내 대업을 이루지 못하고 효종이 돌아가자 우암은 그 옷 안에 그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는 발문을 적어 넣어 절의충념을 다시금 새로이 다진다. 우암은 그러한 성충을 평생토록 잊지 못하고 지내다가 유배지로 가는 도중 효

9) 『宋子大全』권2. “孝廟當教曰明天理人心吾責也 今日與我共此者捨鄉其誰乎”

종을 그리면서 절의충님의 충정을 읊은 것이다. 이러한 연군에의 충정은 우암의 <次韻謝金能之見贈>이란 7언시에서도 쉬 찾아볼 수 있다. 그 1에서 그 6까지 표출된 기구의 “中夜悲歌泣孝宗”(밤중의 슬픈노래 효종을 생각하니)과 그 7의 절구에 표출된 “中夜悲歌泣孝宗”(밤중의 슬픈노래 효종생각이어라)등은 신하된 자로서 효종을 향한 절의충님과 연군에의 충정을 읊은 지정의 극치라 하겠다. 이어 우암은 제주섬에 당도하여 다음의 5언율시로 연군에의 정을 읊었다.

八十餘年翁	말십을 넘은 늙은이가
滄波萬里中	푸른 파도 만리 속에 있네.
一言胡大罪	말 한마디가 어찌 큰 죄리오마는
三黜亦云窮	세 번 내쫓기니 또한 궁하다고 하겠네.
北關空回首	북녘 대궐 하늘을 뒤돌아 보았건만
南溟但信風	남쪽 바다에는 다만 계절풍만 부네.
貂裘舊恩在	담비털옷을 내리셨던 옛 은혜 새기면서
感激泣孤忠	외로운 충의에 북받쳐 눈물만 흐르네.

이어 우암은 5언절구 <五月四日>에서도 연군에의 충정을 다음과 같이 표백하였다.

五月四日

此日知何日	이 날이 무슨 날이던고
孤衷上帝臨	외로운 충정 상제께 강림하시리
侵晨痛哭後	새벽에 통곡하고 나서
抱膝更長吟	무릎 안고 다시 시를 읊었노라.

위의 시는 효종이 승하한 5월 4일을 표제로 하여 읊은 것이다.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입을 먼저 보내고 살아 남은 늙은 신하의 불충을 자책하면서 효종을 그리는 것이다. 그중 7언절구 <曠孫詠一絕以示因用其韻> 등은 5월 4일을 소재로 한 것이다. 그중 7언절구 <次李同甫五月四日韻>에서도 연군에의 충정

을 표출하고 있다.

次李同甫五月四日韻

聖主何年棄土中	효종께서 어느 해에 나라를 버리셨나
小臣今作白頭翁	소신은 이제 백발 늙은이 되었다오
年年五月逢初四	해마다 오월 초 나흘날 만나면
痛哭空山斷上穹	공산에 통곡하며 하늘에 하소연합니다.

이제 백발의 늙은이가 된 우암의 처지이다. 그러나 우암은 효종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큰 은덕을 잊지 못한다. 효종이 승하한 5월 4일을 맞으면 돌아간 효종의 생각에 젖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하물며 유배생활에 직면한 처지이고 보면 연군에의 충정은 더 한층 불꽃처럼 강렬해지는 것이다. 결구에 와서 우암은 하늘을 향해 자신의 평생 뜻인 도학정치를 펴지 못한 원망, 효종에 대한 절의와 한을 하소연하고 있다.

숙종 9년(1683) 계해 2월에 우암은 <請以孝宗大王廟爲世室疏>를 올려 효종의 廟饑를 <百世不遷之宗>으로 높이자고 했고, 후세 군왕들이 효종의 자주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으로 효묘를 높이려고 했을 정도로 효종에 대한 절의충념을 표백하고 있다.

늙고 병든몸이 北向^하야 우니노라
 남향한 마음올 귀안 두리마는
 둔빚고 밤긴절이면 나쁜인가 ^하노라
 <가람본 「정구영언」 188>

유배지 제주섬에서 임이 계신 왕도를 향하여 연군에의 충념을 읊은 우암의 시조이다.¹⁹⁾ 그는 비록 유배의 비운을 당할 당정 입에 대한 충성언 변함이 없

10) 梁淳秘, 앞의 책, p.60.

음을 표현했다. 유배지 朝天館의 戀北亭¹¹⁾·望京樓¹²⁾ 등은 그를 비롯한 많은 유배인들이 변함없는 충성의 회포를 풀던 곳이기도 하다.

삶의 격정적인 순간은 죽음으로 연결되고, 다시 달로 운회의 생을 갖기를 열원한다.¹³⁾ 달 자체도 애상적인데 그것이 유배지에서 보는 달이고 보면 마치 낙월처럼 더욱 애처로울 것이다. 이러한 슬프고 연약한 애상의 분신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임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은 마음 때문이라 생각할 때, 긴긴 달 밤은 애처롭고 처량한 이미지로 느껴지게 마련인 것이다.

2) 身上自歎

우암은 유배생활 동안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자탄의 정감을 읊었다.

耽羅舟中

遼客孤舟去	쫓기는 나그네 외로운 배로 떠나니
鯨波萬里深	바다의 큰 파도 만리에 깊어라.
平生仗忠義	평생에 충의를 지켰으나
虞虜不須尋	우묘제 어디서 찾으리요.

유형수의 제주도 유배 해로에는 반드시 추자섬을 경유한다. 추자섬에서 제주섬까지는 5백여리, 추자섬 이북엔 드문드문 섬이 있어 비록 배가 표류하더라도 추자섬에 와 닿을 수 있으니 이남은 절해 도서로 표류하면 中原이나 왜국에 닿는 외에는 망망적수뿐으로 舟行者는 추자섬으로써 남쪽을 경계삼는다고 한다.¹⁴⁾ 이른바 제주섬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해천험의 섬으로 입지

11) 金錫翼, 「耽羅紀年」 宣祖 32년조

12) 趙貞喆, 「靜軒瀛海處欽錄」 권4

13) 鄭在皓, 「歌詞文學에 나타난 自然觀研究」 (고려대박사논문, 1977), p.54.

14) 林梯, 「南溟小乘」 “濟州至此水程可五百餘里 而楸子以北則往往有島嶼 故雖漂風而勢可依泊楸子 以南則絕無島嶼 西漂則或可至中原 東漂則或可倭國 而其外則浩浩茫茫積水而已 故舟行者以楸子 以南爲戒矣”

적, 자연적 조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평상인의 제주섬 입도는 생사간의 문제이었을 것이다.

위의 5언절구 〈耽羅舟中〉은 제주섬으로 유배당해 가는 도중 배 속에서 감회를 읊고 있다.¹⁵⁾ 제주섬으로 향하는 배는 천파만파 풍랑 속에 있다. 이는 조정에서 일어나는 정치상황과 꼭 같다. 우암 자신은 평생 충의로 군왕을 섬겼다. 그런데도 우암은 죄없는 자신만 제주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니 절로 자탄에 젖을 수 밖에 없다. 신에게 구원을 청해야 할 우묘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평생 당당하게 충의를 지켰던 강열한 의지로 바다길에서 우묘제는 찾을 필요가 없는데도 우묘제를 찾는 우암의 심정에서 신상의 자탄을 읽을 수 있다.

耽羅舟中 其二

孔聖恩浮海	공자계선 바다에 뜨려 했고
涪翁澗瀾時	부옹도 염예의 시절 있었지.
千秋相感意	천추에 서로 느끼는 뜻을
今日有誰知	오늘날 그 누가 알라.

우암은 5언절구 〈耽羅舟中〉 그 2에서 유배를 가는 도중 배 속에서 유배 된 자신의 처지를 공자의 ‘乘桴浮于海’하던 일에 비유했다.¹⁶⁾ 그리고 송나라 정자가 부릉에 우배되어 가는 길에 파도가 출렁이는 풍랑을 만났던 일에 비유하면서 느낀 감정을 읊었다. 천추에 바다를 건너며 느낀 선인의 뜻과 자신이 겪고 있는 처지를 그 어느 누구도 알아줄 것인가의 설의 속에 우암의 자탄을 읽을 수가 있다.

15) 梁淳秘, 앞의 책, pp.67-68.

16) 앞의 책, p.68

漫吟

眞儒點享賢臣死
不怨時人只怨天
生出晦翁如有意
却令逢着慶元年

참된 유현 출향되고 현신이 죽으니
시인을 원망않고 하늘을 원망하네
주자를 출생시킴은 뜻있는 듯했지만
문득 경원의 해를 만나게 했구료.

위의 7언절구 <漫吟>은 당파싸움으로 달미암아 유배당한 아픔의 정감을 읊었다. 참된 유현은 출향되고 현신은 죽어 갔다. 이런 일을 시인을 원망치 않고 하늘을 원망할 것인가, 내재적으로 자신의 유배된 처지를 자탄하고 있다. 우암은 하늘을 향하여 지신의 평생 뜻인 도학정치를 펴지 못한 원망과 자탄을 호소하고 있다.

無題

衝海此來知幾日
逐臣竊思莽何窮
雨潭山服雲常黑
霧暗城頭日不紅
聞說羅尼眞道學
却着閩洛是空同
可憐沃島魂長逝
誰向蒼梧取正中

바닷가 이곳 온지 몇날이던가
쫓겨난 신하 외로운 생각 끝이 없어라.
비내리는 산 허리 구름은 늘 캄캄하고
안개 건 성 머리 햇빛이 없구나.
듣건대 여니가 참 도학이라니
정자 주자는 명칭이가 되겠군
가없구나 옥도의 녀 길 떠났으니
누가 창오를 향해 정중을 취할건가.

위의 7언을 <無題>도 자신의 평생 뜻인 도학정치를 펴지 못한 원망과 자탄을 읊고 있다.

次花陰亭

尤庵 宋時烈的 濟州流配詩 小考

孝烈忠信母子孫	효열과 충신인 어머니, 아들, 손자들
天褻未及百年冤	나라 표창 못받아 백년의 원통되었네.
世間由是無公道	세상 일 이같이 공도가 없으니
誰識三綱竝一門	삼강이 한 집안에 있음 누가 알겠나.

위의 7언절구 <次花陰亭>은 鄭野叟의 운에 차하여 기사년(1689) 5월 28일에 지은 것이다. 효열과 충신의 집안이 나라의 표창을 못받는 세상 일, 공도가 무너져 삼강이 한 집안에 있으나 어느 누가 알겠느냐고 원통히 여기면서 자신의 신상을 자탄하고 있다.

仙巖驛

紛紛末路道非眞	분분한 말로에 도가 참되지 못했는데
惟有仙翁繼聖神	오직 주자께서 성신을 이으셨네.
魚躍鳶飛彈發後	물고기 뛰고 조리가 날음 발명한 후에
莫言千載更無人	천 년 동안 사람 없다 말하지 마오.

위의 7언절구 <仙巖驛>은 朴受汝의 운에 차하여 기사년(1689) 6월 3일 전라도 광주 선암역에서 지은 것이다. 동년 6월 7일 전라도 정읍에서 사약을 받기 4일전의 시다. 우암의 마지막 시가 된다. 남인들은 우암을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고서도 불안해 하다가 서울로 소환하여 재차 국문하겠다는 구실을 내세운다. 우암은 서울로 소환되어 가던 중 정읍에서 사사당하는 것이다. "분분한 말로에 도가 참되지 못했는데"의 대목에서 우암의 말로를 암시받게 되고 "천 년 동안 사람 없다 말하지 마오"라는 대목에서 쉬 우암의 신상자탄을 읽을 수 있다.

3) 懷鄉懷憶

우암은 유배생활 중에 고향을 그리워하고 친구와의 옛일을 생각한 회향과 회억의 정감을 읊었다.

再用曠孫端午韻

白首孤臣此島中	백발의 버림받은 신하 이 섬속에 있지만
何須放曠哭途窮	어찌 길 막혔다 방황하여 울겠는가.
風鳴竹塢泉聲遠	대숲에 바람이니 물소리 멀고
月出山城海色空	산성에 달 비치니 바다는 하늘 빛이네.
緬想楚江人競渡	상상컨대 초강 사람 다루어 건너련만
遙憐鄉國信難通	가엽구나, 고향 소식 통할 길 없네.
徘徊永念平生志	배회하며 평생의 뜻 생각하니
九死寧忘孝與忠	아홉번 죽은들 어찌 충효를 잊으리오.

위의 7언율시 <再用曠孫端午韻>은 회향의 정감을 읊은 것이다. 자신은 이 섬속에 버림받은 백발의 늙은이다. 대숲에 바람이 일고 물소리는 멀어 산성에 달이 비치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더욱 간절해진다. 그래서 고향 소식을 듣 고자 하여 다루어 대화를 시도해 보지만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고향이 더욱 그리기만 하다. 또한 적소를 배회하며 지나온 날들을 생각 하니 불효의 죄는 無間地獄에 떨어져도 잊을 수가 없다는 회한어린 심정을 읊 고 있는 작품이다.

春日憶先職

漢驛山下號瀛州	한라산 아래를 영주라 이름하니
山上猶着丈雪留	산 위에 아직도 길 눈이 쌓였네.
緬憶橋山花爛漫	멀리서 생각컨대 교산엔 꽃이 난만하고
應隨油粉薦雙丘	제수를 만들어 부모 산소에 올리리라.

위의 7언절구 <春日憶先職>은 83세의 고령으로 유배지 제주섬에서 우암이 돌아간 부모의 산소를 생각하면서 회향의 정감을 읊은 것이다. 봄날 제주섬의 산위에는 아직도 눈이 한 길이나 쌓였지만 멀리 고향의 교산에는 꽃이 난만하

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부모의 산소에 제수를 올리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정감 속에서 우암은 오래 전에 책상을 마주했던 자기 고족인 權尚夏와의 옛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憶致道

相籬涉夏意何如	헤어진지 여름이 지났으니 마음 어떠한가
猿說年前德不孤	전엔 덕불고의 외람된 말 하였지
萬里滄溟消息斷	만리 바닷길에 소식이 끊겼으니
連床能憶舊時無	책상을 마주 했던 옛일이 생각나네.

위의 7언절구 <憶致道>는 유배생활 중에 권상하를 생각하면서 회억의 정감을 읊은 것이다. 우암은 오래 전에 권상하와 책상을 마주 하면서 외람되게 “덕은 외롭지 않아서 반드시 이웃이 있다(德不孤必有隣).”는 논어의 里仁을 말하였다. 그러나 유배생활 중에 만리 바닷길에 소식이 끊기고 보니 우암은 실로 덕은 외롭다고 토로하고 싶은 심정인 것이다.

4) 自然愛

漫吟

海曲陰陰畫不明	바닷가 그늘 많아 낮에도 밝지 않으니
深林망魅自縱橫	깊은 숲 도깨비만 부산하네.
庭前幸有千枝樹	뜨락에 다행히 천 가지의 나무 있어
臥聽黃鸝一兩聲	누워서 꺾꼬리 한두 소리 듣노라.

위의 7언절구 <漫吟>은 유배지 제주섬의 자연에 몰입한 우암의 심회를 읊었다. 우암의 제주섬에서의 유배생활은 백여 일에 불과하다. 83세의 고령으로 제주섬에 유배된 우암은 제주 유배생활에서 “아우와 형, 손자와 자질이 유배

지에서 함께 있어 기쁘구나. 백수에 어느 때 고향을 향하랴. 낯선 타향도 고향인 것을”¹⁷⁾ 하고 자신의 소회를 읊었는데 그 낯선 타향에서 고향처럼 느껴지는 대상은 자연인 것이다. 자연에서 유배생활의 아픔을 위로 받고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바닷가 그늘 많아 낮에도 밝지 않은 제주 섬, 그리고 깊은 숲에 도깨비만 부산한 주변, 그래도 다행히 적소의 뜨락에 천 가지의 나무가 있어 꾀꼬리가 날아든다. 이 꾀꼬리 울음 한두 소리를 들으면서 우암은 자연과 동일시 하는 것이다. 우암의 다음의 시조에서도

靑山도 절노절노 綠水 | 도 절노절노
 山 절노절노 水 절노절노 山水間 나도 절노절노
 그중에 절노조란몸이 늣기도 절노절노 늣으리라
 〈瓶歌 1013〉

우암 자신과 자연과의 조화를 내용으로 한 철학적 경지를 읊었다.¹⁸⁾ 이러한 경지는 출사하는 동안에는 체험할 수 없는 철리인 것이다. 곧 유배 생활을 통한 자연애의 몰입에서 오는 자연애와 조화에서 가능한 일인 것이다.

5) 樂天的 詠懷

耽羅適所

弟兄孫子姪	아우와 형 손자와 자질이
天外喜同堂	하늘 밖에서 같이 있음 기쁘구나.
白首何丘首	백수 어느 때 고향을 돌아갈건가
他鄉似故鄉	낯선 타향 고향만 같구나.

위의 5언절구 〈耽羅適所〉에서는 제주섬에 유배를 왔으나 아우, 형, 손자,

17) 『宋子大全』권4

18) 梁淳秘, 앞의 책, p.60.

조카가 함께 이 곳에 왔기 때문에 제주가 타향이 아니고 고향같이 포근하게 느끼는 정감을 읊고 있다.¹⁹⁾ 그러나 이들도 잠시 머물 수 있을 뿐, 결국 혼자 남게 되기 때문에 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것이다. 우암은 적소에서 자신의 심경을 낙천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V. 결 론

일찍이 율곡과 사계의 학통을 이은 우암이 유림의 영수요 斯文의 宗師요, 경세의 원로요 시문의 巨擘임을 자타가 한결같이 공인하는 바이다. 물론 북벌 계획과 예송으로 국론이 분화되고 懷尼문제로 말미암아 毀譽褒貶이 엇갈렸음은 사실이다. 따라서 동방의 儒宗 퇴계와 율곡에 비겨 事大와 分派를 꺼린 나머지 그 성에만큼 그 우람스러운 자취가 들어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제까지 우암 송시열이 숙종 때 발생한 기사환국으로 말미암아 원악지 제주섬에 유배되고 제주섬에서 유배생활 백여 일 동안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정황을 시로 표출한 유배시 15수를 대상으로 그의 문학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한마디로 우암 송시열은 제주 유배생활 동안 문이재도와 자탄, 충념의 시를 통하여 유배적 정황을 표출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우암 송시열은 숙종 때 기사환국으로 제주섬에 유배되어 재차 국문을 받기 위해 소환되어 가던 중 전라도 정읍에서 사사되었다.

둘째, 우암 송시열의 문학관은 조선조의 문학관인 문이재도론을 그대로 계승하고 오히려 당대의 시대의식과 위기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의양적 태도로 문이재도론을 보다 강화하였다.

셋째, 우암 송시열이 지은 제주 유배시의 주제적인 내용은 ① 절의충념 ② 신상자탄 ③ 회향회억 ④ 자연애 ⑤ 낙천적 영회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우암의 제주 유배시에는 83세의 고령임에도 유배된 불운 속에서 그

19) 앞의 책, p.89.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자신의 처지를 읊으면서 자탄의 신상자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우암의 제주 유배시에는 유배적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군왕을 그리는 절의충념을 읊은 주제적 내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절의충념의 대상은 바로 병자호란으로 국치비분에 떨며 복벌계획을 꾀하던 효종을 읊고 있다. 효종이 돌아간 5월 4일은 우암의 시의 표제가 되어 있을 정도이다. 효종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그 출처진퇴가 엄전했던 우암의 절의충념이 잘 표백되고 있다.

여섯째, 그밖에 유배생활 동안에 고향을 그리는 회향의 정감과 옛벗을 그리는 회억의 정감을 읊은 것과 유배지 제주섬의 자연에 몰입한 자연애를 읊은 것이 있다.

일곱째, 우암 송시열의 문학세계의 총체적 연구는 그의 시문과 서간 등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